

는 회중에게 복음의 순수성, 교사나 목자로의 목회모델을 이상으로 삼는 개혁주의적 목회자역할에 대한 타협없이 어떻게 참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성경 본문의 해석이 적용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적용이 해석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한 청지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그것이 심겨질 토양, 즉 목회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거쳐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라는 목회현장, 즉 자기 중심적이고, 필요성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회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형태로 바꾸어 놓으려면 현장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직, 교인들을 돌보는 자로서의 목사직을 포기 함 없이, 변화하는 현장에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시대적 정서에 맞는 설교자, 부단한 자기 간신, 신정보 입수, 현장에 대한 지식의 축적, 복음을 현대인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요리하는 고도의 기술,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수직적인 사고구조를 버리고 수평적인 눈을 가진 지도자, 문화적 탁월성, 대중적 흡인력을 가진 설교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죄를 경계하며 호소하고 설득하는 아버지 같은 설교자, 성경적 메세지를 제공하고 설교의 요점이 분명한 설교자, 영적인 깊이와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도덕적 영적 모범으로서의 목사가 요구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이상적 목사상은 하나님의 말씀, 현장자식과 문화적 탁월성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는 경건한 영적인 삶으로 무장된 목사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있다 는 점을 동시에 중시하는 목회자가 요청되는 것이다.

2,000년대 한국의 목회 현장

현 유 광
(교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 론

2천년대가 이제 7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날에는 100년이 걸려야 이루어지던 변화가 오늘날에는 1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 주후 1500년경 레오나드 다빈치는 날틀(flying machine)을 어설프게나마 설계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400년 후인 1903년 라이트 형제(The Wright brothers)가 최초의 엔진을 사용한 비행기를 만들었으로 현실화 되었다. 그 후 44년 뒤인 1947년에는 미국의 찰스 예이거(Charles Yeager)가 벨 엑스 1호기(Bell X-1)로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러고나서 10년 후인 1957년에는 소련이 스포트닉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므로 오늘날 왕복 우주비행시대를 열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격변의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변화를 주시하며 내일의 세계를 준비하여야만 한다. 사람들은 21세기에 이 세상에 있게 될 변화를 예측하며 여러 각도로 시나리오를 써 보고 있다.¹⁾

1. 김의원, 미래의 세계와 한국교회 사명 (서울 성광문화사, 1991), 205 ~222, 참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14~21에서 그의 제자들, 곧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 즉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세상과 유리되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감과 순결을 지키는 동시에,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양과 같은 처자에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주님의 교회가 오늘과 내일, 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급변하고 있는 세계 속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로 알아야 한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그러한 형편에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며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안도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2천년대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 있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먼저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목회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론

2000년대의 한국의 모습과 목회를 위한 조언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2000년도 이전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이러한 현상으로 대치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주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는 목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정치면에서

우리 나라가 주후 2천년대에 정치면에서 맞이하게 될 특징적인 현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첫째는 지방자

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통하여 민주주의적 제도가 확립될 것과 국민들 안에 민주주의 의식이 고취될 것이다. 둘째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다.

첫째, 민주적인 제도와 의식의 확립, 1960년 4·19 학생의거 이후 우리 나라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주화의 열풍이 불어 닥쳤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32년간의 군(軍)을 중심한 정치의 막을 내리고,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섬으로 하나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하겠다. 김 대통령은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므로 민주화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기득권층의 반발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의 의식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민주적인 제도와 국민의식이 분명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와 의식의 변화는 목회자의 리더쉽 -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카리스마적, 권위주의적인 리더쉽을 통해 교회가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70, 80년대에 있어서는 엑스폴로나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등과 같은 전국규모의 대중운동, 그리고 개교회의 부흥회, 기도원 등지에서의 특별기도성회 등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2천년대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후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지도력 형태는 평신도와 동역자관계의 모양을 떨 것이다. 즉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소규모 성경공부 모임이나 제자훈련 모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인제사장직의 원리에 입각하여 평신도들을 격려하고(encourager), 유능한 일꾼으로 세우고(enabler/equipper/facilitator),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양(co-worker)이 될 것이다.²⁾

목회자는 교권주의와 교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과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도덕적으로 범죄한 교인을 올바른 권징절차에 따라 치리하는 것은 교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겸증해 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자신이 목사라는 이유로 자기의 의견을 따르라고 할 때는 교권주의가 되는 것이다.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교회의 참된 3가지 표지 중의 하나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성경적 권징의 시행은 목회자가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교권이다. 목사의 교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적용하는데서 목사의 권위는 확립되어진다.

많은 목회자들이 흔히 “교회는 신본주의로 운영되어져야 하지,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대단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교권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이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본적인 생활의 원리를 보여주는 데는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때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마음을 합할 것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구제를 위한 일꾼을 선택할 때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일곱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천거하도록 하고, 일곱 사람이 추천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맡겼다. 교권이 행사되면서도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일이 처

2. 혀일찬, “급변하는 시대, 시대를 앞서는 미래목회를 창출하자”, 월간 목회, 1993. 8, 47~48. 참고.

리가 되었다고 할 때, 오늘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교권이 바르게 유지되고 행사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교회원들의 생각이 교회 전체의 일들에 지혜롭게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점에서 마음을 열어야 하고 교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원들로서는 교권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조류를 경계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므로 유기체이며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일들을 일치와 화합 가운데 이루어가야 한다.

둘째로 통일한국 남한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문민정부의 등장, 북한의 권력계승과 경제위기, 그리고 핵보유 문제로 말미암은 국제적 고립 등의 상황은 남북한의 통일에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증대되며,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동·서 독일의 통일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통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교의 기회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고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교회적으로는 북한 선교를 위한 일군양성이 있어야 하며 교단적으로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북한 동포에 대한 선교는 2000년대에 있어서 북방 선교의 전략적 교두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선교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포에 대한 접근과 선교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선교는 중국인들과 몽고와 시베리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전도의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선교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 목회자들은 최소한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북한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관심

을 가질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북한선교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주일학교와 청소년, 대학부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며 헌신하도록 도전하여야 한다.

2. 경제면에서

우리 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을 벗어나서 중진국의 자리에 있다. 또 200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³⁾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성장 방식을 택한 대만과는 달리 재벌주도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70년대와 80년대 전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공장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비참하기까지 하였다. 더우기 재벌들을 비롯한 복부인들의 땅에 대한 투기와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은 건실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고 한탕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움직임은 80년대에 노사간의 침예한 대립을 불러 일으키길 하였으나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중산층의 형성에 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크게 성장한 것이다.

오늘날 아직도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냉장고, 칼라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를 안가진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자

3.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첫해에 국제 경쟁력 회복, 둘째 해에는 제도개혁 마무리, 3차년에는 국제화 추진에 주력, 4차년도에는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5차년도에는 신경제 목표를 마무리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⁴⁾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되므로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물질만능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종교이반현상은 1990년 아래로 우리 나라의 개신교회들의 성장둔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도 1987년 아래로 성장이 담보상태로 있다. 1993년 10월 29일자 국제신문 종교란에서 카톨릭의 새신자 감소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문화와 사회구조가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관쪽으로 변화해 종교보다는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카톨릭 교회가 성사집행과 의식(儀式)적인 것에 치우쳐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여기는 풍조의 만연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2000년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앙과 생활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설교와 교육, 주일예만 국한되지 않는 통전적인(holistic)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세를 강조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주입식, 강의식 방법을 지양하고 피교육자를 스스로가 발표와 토의에 참여하는 식의 교육방법을 사용하므로써 지식의 내면화를 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윤택함은 생활을 보다 개인적으로 만들고 레저문화를

4. 동아 연감, 1992, p. 395에 따르면 1988년 순수한 자가용 보유자가 975,013, 1989년에는 1,405,344, 1990년에는 1,902,067로 2년 사이에 200% 증가하였다.
5. 즉 1990년 개신교 신자수는 11,427,485명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였고, 1991년에는 12,901,837명으로 연평균 5.8%, 1992년에는 12,571,062명으로 연평균 4.0%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전도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부흥회나 총동원전도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더욱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 9월 28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이웃과 가족, 그리고 친지를 1차 전도대상으로 삼는 “안면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사화하고 있으나, 21세기의 경제생활의 향상으로 인한 개인주의적인 세태에서는 이것보다 확실한 전도의 방법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먼저 동네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이루어지는 현존전도(Presence evangelism)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후 직장신우회, 구역예배, 또는 교회에 초대하는 등의 선포전도(Proclamation evangelism)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설득전도(Persuasion evangelism)를 통해 결신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겠다.

3. 사회편에서

2천년대의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정의 붕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붕괴는 부부간의 갈등 내지는 이혼,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등에서 표출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8가정당 하나꼴로 나타난다.⁶⁾ 이혼은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홈즈와 레이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⁷⁾ 배우자의 죽음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100으로 생각할 때 이혼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는 7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감옥

6. 동아연감(1992), 122: 90년 한해 동안 전체 혼인건수의 12%에 해당하는 48,000쌍이 이혼.

에 갇히는 것이 63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충격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성인을 표준한 것이므로 이혼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은 이보다 크면 커지 작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1975~89년 사이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 1만명 당 성인범죄는 77.9%가 증가한 반면 청소년범죄는 82.5%가 증가하여 청소년층의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범죄는 더욱 흉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 역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의료혜택이 국민의료보험을 통해 광범위하게 주어짐에 따라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중심의 형태로 바뀌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노후대책이 막연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목회자는 더욱 심각해질 2천년대의 가정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동호는 월간목회 1993년 11월호에서 가정목회 프로그램으로 고부(姑婦)교실, 노인학교, 부부교실, 예비부부교실, 임산부교실, 부자(父子)교실, 형제교실 등으로 들고 있다. 특별히 필자는 목회자가 결혼 전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결혼식을 앞둔 남녀를 잘 교육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제이 아담스가 강조하고 있듯이⁸⁾ 결혼 주례자가 1시간 가량의 결혼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적어도 4~50년을 가지게 될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를 시키지 않고 결혼주례를 맡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결혼주례를 맡은 목회자는 적어도 1시간씩 2회 정도의 상담 내지는 교육을 통하여 성경적 결혼의 의미, 부부간의 역할과 책임, 대화의 기술, 결혼을 통하여 갖게 될 문

7. Thomas H. Holmes and Richard H. Rahe,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1967, 216 참고.
8. Jay E. Adams, 「성공적인 목회상담」, 정삼지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88~116. 참고.

제,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나누며 준비시켜야 한다.

가정을 위한 목회사역에 있어서 목회자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가정예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정은 언약의 장소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예배가 필수적이다. 신명기 6:4 ~9의 “쉐마” 본문은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가정중심의 신앙교육의 효과를 약 1900년 후에 나라를 되찾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오늘 날 특별히 가족들의 유대가 약화되어가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쇠퇴되어가고 있는 이 때에 가정예배는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이며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2천년대를 앞둔 목회자는 가정을 위한 사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중심보다 가정중심의 신앙생활 패턴을 강조하여야 한다.

4. 문화면에서

여러가지 문명의 이기(利器)들—텔레비전, 비디오, 유선방송, 팩시밀리, 전화, 컴퓨터 등—은 성인이나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쳐, 어른들로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가버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면 다 알고 할 수 있는 작은 성인으로 변화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성적인 범죄나 담배, 음주, 심지어 환각제문화를 국민학교에까지 파급시키고 있다.

이와 아울러 탈종교화 현상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상대주의로 모든 것을 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뉴에이지 문화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중심의 사상은 소외감과 혐무감을 가중시켜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보다 신비적인 사교를 찾으며 미신을 따르는 현상을 보인다. 1993년 11월 30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기독교 성직자의 수가 약 3만명인 반면 마법사, 접술가의 수는 약 9만명 가량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2만 6천명 대 4만명의 비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을 지혜롭게 지적하면서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설득은 대중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제이 아담스나 로렌스 크랩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목회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뿐 아니라 성숙한 교인들을 이러한 상담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므로 효과적인 2천년대 목회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겠다.

교회는 괴동적으로 세속문화를 수용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대에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시대의 세속문화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갈급함을 문학과 미술과 음악 등의 분야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채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확립해야 하며, 나아가서 성도들의 의식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기 위해 힘써야 한다.

결 론

레오나드 다빈치가 날틀을 생각할 때나, 라이트 형제가 그들의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어”(Flyer)를 시험비행할 때만 해도 이러한 아이디어는 고대 희랍의 신화 “이카루스”的 이야기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혁황된 것으로 여기고 조소를 보내거나 아니면 회의적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때에도 그러하였다. 로마는 당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는듯이 보였다. 사도 바울이 순교로 그의 삶을 바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를 결국 정복하였다. 1,700년대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영국사회에 엄청난 비리와 악을 편만하게 하였으나 존 웨슬리를 비롯한 열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국을 변화시켜 다시금 세계에 복음을 힘차게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한다. 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다. 2천년대의 현실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목회전략을 개발해 나가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자.

2000년대 교회와 교육목표

강 용 원
(교수, 고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000년대가 이제 7, 8년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최근에 청탁을 받는 원고의 주제나 강의의 제목에는 유난히도 ‘2000년대’라는 말이 자주 나타난다. 1900년대와 2000년대는 그 숫자에 있어서도 큰 차 이를 느끼게 해 준다. 어쩌면 2000년대는 오늘의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아주 다른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감을 느껴 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에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을 추정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연, 월, 일, 시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크나큰 배려라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하는 이런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